



올 한국경마를 대표하는 조교사와 기수는 누굴까. 2016 영예의 전당에 오를 조교사와 기수 후보자가 선정됐다. 올 처음으로 신설된 영예의 조교사 후보에는 김영선, 하재홍 조교사가 이름을 올렸고, 영예의 기수 후보에는 조성근, 박기영, 김대연, 김경훈 기수 등 4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총 3번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영예의 전당에 오르게 된다. 사진은 경주로를 달리는 기수들. 사진제공: 한국마사회

올해 '영예의 전당' 기수, 치열한 4파전

영예기수 후보 조성근 박기영 김대연 김경훈
신설 영예조교사 김영선·하재홍 조교사 후보

“올해 한국경마를 빛낸 최고의 조교사와 기수는 누구냐?”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올해 영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조교사와 기수를 선발한다. 최고의 영예가 주어지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경마의 주인공인 경마고객들에게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영예조교사 제도를 신설했다. 올해의 주인공은 누가될까.

●영예의 전당에 지낸해까지 서울 8명, 부산 1명, 제주 5명 입성

경마인의 최고의 명예는 '영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것이다. 랫츠런파크 서울의 경우 1998년 박태중 기수를 시작으로 배후준 조교사, 우창구 조교사, 최봉주 조교사 등 총 8명(당시 기수 신분)이 이름을 올렸다. 부경은 지난해 선발된 유현명 기수가, 제주는 2003년 박병진 조교사를 비롯해 문성호 기수, 장우성 기수 등 총 5명이 입성했다.

올해 영예조교사 및 기수 선발을 앞두고 한국마사회는 경마관계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6명의 후보자를 선정했다. 영예조교사 후보로는 김영선·하재홍 조교사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둘 다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활약 중인 조교사들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우승 횟수에서는 하재홍 조교사가 886회로 김영선 조교사보다 1회 앞서지만, 준우승 기록에서는 김영선 조교사가 우위에 있다.

영예기수 후보로는 조성근, 박기영, 김대연, 김경훈 기수가 이름을 함께 올렸다. 서울에서 맹활약 중인 조성근 기수의 경우 지난해까지 대상경주에서 15회 우승을 차지했다. 총 우승

횟수도 659회나 된다. 다른 3명의 기수들은 모두 랫츠런파크 제주에서 활동 중이다. 제일 막내인 김경훈 기수는 올해 40세, 김대연 기수는 45세, 박기영 기수는 47세이다. 그럼에도 세 명 모두 500회 이상 우승을 거머쥐며 아직까지 현역으로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 3번의 심사 통해 최종선발...선발 절차 까다롭기로 정평

영예조교사 및 기수 선발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 총 3번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1차 평가는 기본요건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조교사의 경우 경력 15년 이상에 출전횟수도 5000회(제주는 8000회) 이상, 우승횟수 500승(제주는 1000승)이 되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과태금 처벌 부과금액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소속 관리사가 관리정지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기수 또한 기승경력 10년 이상에 기승횟수 3000회 이상, 우승횟수 50승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에 통산 30일 이상의 기승정지 제재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나서야 비로소 2차 평가를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차 평가에서는 경주성적, 규정준수도, 자질 및 품성 등의 항목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

자, 동료 조교사 및 기수, 고객 등으로부터 달리 평가를 받는다. 이중 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항목은 조교사 및 기수의 자질, 품성 등과 관련된 것들로서 페어플레이, 기승 및 출전 충실도, 고객서비스 등이 그 세부 내용이다. 2차 평가에서 기준을 웃도는 점수를 획득할 경우 한국마사회 내부 면허전환위원회의 3차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예조교사 및 기수로 선발될 수 있다.

●19일까지 고객평가 시작...마사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 진행

고객평가는 오는 19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에 가입된 경마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지난해 12월 31일 이후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참여가 불가하다. 이는, 영예조교사 및 기수 선발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까지의 성적 및 기록을 토대로 진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최종결과는 7월중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며, 참여자 중 일부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누가 고객의 마음을 잡고 올 영예의 전당으로 가는 티켓을 거머쥘까. 고객들의 마음의 시계가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말(馬), 예술과 만나다 | 유종욱 '청자말'



〈도자편(片) 등 복합재료, 230x70x160(H)cm, 2014〉

'새움'이라는 고려의 도공이 신비로운 빛깔의 청자를 만들고 싶었던 평생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은 후 홀연히 백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던 샘의 물을 마시자 영롱한 빛깔의 청자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제주에서 활동 중인 작가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말(馬)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랫츠런파크 서울 김정희 학예사

1만2139배 터진 삼쌍승식 인기 소액으로 고배당 당첨 가능...경마고객 몰려



“2000원 배팅하고 2000만원 대박!”

지난 10일 한국경마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삼쌍승식(1~3위 순서대로 맞는 방식)의 인기가 심상찮다. 단승식 복승식 등 다른 승식에 비해 적중확률이 낮지만 소액으로 높은 상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삼쌍승식 도입 첫날 랫츠런파크 제주에서 삼쌍승식에 2000원을 배팅한 고객에 1900만원의 당첨금을 가져가는 등 1만2139배의 고배당이 터졌다.

배팅한 돈의 1만2139배에 달하는 액수를 가져간 행운의 주인공은 총 9명. 이들 중 최고 환급금은 2000원을 배팅한 한 경마고객이었다. 세후로만 따져도 약 1900만원에 달했다. 나머지 8명은 대부분 100~500원 사이 금액으로 배팅했다.

삼쌍승식 운영 첫날인 지난 10일, 삼쌍승식의 매출 점유율은 약 3.5% 수준. 금액으로 약 36억원에 달했다. 평균 배당률은 서울 1224배, 제주 2270배, 부경 388배였다. 당일 최저 배당률은 14.4배였으며, 최고 배당률은 1만2139배였다.

역대 최고 배당률을 보면, 우승마를 맞는 단승식의 경우 2194.4배(2007년), 3위 안에 들어올 경우 유추하는 연승식은 792.5배(2007년), 순위외 상금없이 1~2위를 맞추는 복승식은 7328.8배(1998년)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삼쌍승식 홍보를 위한 고객 이벤트를 시행 중이다. '참가왕'과 '행운상' 이벤트를 내달 10일까지 진행한다. '참가왕'은 최다 구매횟수를 기록한 상위 100명의 고객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행운상'은 총 1200명의 고객들에게 지급되며 모바일로 마도를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삼쌍승식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만큼 어느 정도 고객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시행해보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연재호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A등급

현명관 회장 “1년만에 두 단계 성장 고무적”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16일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던 데는 경영혁신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마사회는 공기업 중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다. 또 연봉제이외의 퇴직금수당 등도 폐지했다. 인사체계도 바뀌 핵심인재에게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저성급자에게는 역량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마사회가 경영혁신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이번만이 아니다. 현명관 회장(사진)

의 강도 높은 경영혁신책이 도입된 이후 잇달아 좋은 성적표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8.3점을 획득하며 전체 24개 공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등급(1등급)을 달성하며 공직유관단체 Ⅲ그룹(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전 부서가 다양한 서비스개선 사업들을 추진한 덕분이다.

3월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인 89점을 기록하며 'A+' 등급을 획득했다. 헬튼, 플래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건전화 홍보를 강화하는 한



편, 랫츠런파크 문화강화센터 내에 도박중독 예방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교육을 확대 시행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4월에는 PART II 승격을 확정지었다. 일단 PART II 국가로 이름을 올릴 경우, 국내 경주마들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된다. 이는 국내 경주마생산 산업의 성장과 경주마의 해

외수출 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달에는 '공공기관 정부 3.0 실적 평가'서 'A' 등급을 획득하며 기관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공공기관 정부3.0 실적 평가'는 기관들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현명관 회장은 “지난해 한국마사회의 평가 점수는 'C'였다”며 “1년 만에 두 단계를 올랐던 것인데 사행산업이라는 기관 특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년에는 'S' 등급을 거머쥘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연재호 기자

토요경마 출마표 | 18일

Table with columns: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Includes sub-sections for 서울 경마, 제1경주 (1000M) 6B 별정A 일반, 제2경주 (1000M) 6B 별정A 일반, 제3경주 (1300M) 6B 별정A 일반, 제4경주 (1000M) 6B 별정B 일반, 제5경주 (1200M) 6B 별정A 일반, 제6경주 (1400M) 6B 별정A 일반, 제7경주 (1300M) 6B 별정A 일반, 제8경주 (1300M) 6B 별정A 일반, 제9경주 (1700M) 6B 별정A 일반, 제10경주 (1700M) 6B 별정A 일반.

Table with columns: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Includes sub-sections for 제5경주 (1200M) 6B 별정A 일반, 제6경주 (1400M) 6B 별정A 일반, 제7경주 (1300M) 6B 별정A 일반, 제8경주 (1300M) 6B 별정A 일반, 제9경주 (1700M) 6B 별정A 일반, 제10경주 (1700M) 6B 별정A 일반.

Table with columns: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Includes sub-sections for 제7경주 (1300M) 6B 별정A 일반, 제8경주 (1300M) 6B 별정A 일반, 제9경주 (1700M) 6B 별정A 일반, 제10경주 (1700M) 6B 별정A 일반.

Table with columns: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Includes sub-sections for 제10경주 (1700M) 6B 별정A 일반, 제11경주 (1400M) 1등급 별정A 일반, 제12경주 (1400M) 1등급 별정A 일반.